

# “안녕히 가십시오” 무안공항 활주로에 올려퍼진 영원한 작별인사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종단.

소중한 가족들을 앓아간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 앞에서 유가족들은 이날도 준비되지 않은 영원한 작별인사를 이어갔다.

벌써 수차례 로컬라이저를 찾아 주변을 맴돌며 그리움과 원망을 토해냈지만 이날만큼은 유독 가족의 빈자리가 사무치면서 발걸음이 쉽게 떼지지 않았다.

로컬라이저 앞에 선 유가족들은 아연 실색한 표정으로 거친 콘크리트 덩어리를 쳐다봤다.

현장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여객기 잔해는 말끔히 치워졌지만 부서진 둔덕은 참사의 상흔이 돼 흉물처럼 고스란히 남았다.

주황색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심어진 채 파손된 콘크리트 상판은 생선 가시같은 앙상한 철근을 드러낸 채 텅 빈 활주로를 지키고 있었다.

제자리 걸음인 참사 진상규명처럼 콘크리트 덩어리는 무너지지도, 풍화되지도 않은 채 그 자릴 지키고 있으면서 유가족들을 더욱 애타게 만들었다.

유가족들은 이날 로컬라이저 앞에서 12월이 생일이었던 희생자들을 기리며 구슬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생일 케이크를 썰고 촛불을 켜지만 표정에는 수심이 한가득했다.

침사리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축하’라는 말을 내뱉는 유가족들은 입술과 눈꺼풀을 파르르 떨면서 고인을 그리워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 주변에서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향해 쓴 편지를 불태우며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로컬라이저 주변서 희생자 추모식

### 12월 생일 희생자 위한 케이크 마련·편지함 불태우는 의식도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모아 한데 불태우는 의식도 치렀다. 편지함을 불태우며 함께 진행한 헌화 과정에서는 한 유족이 영어리를 씻어내듯 하늘을 향해 ‘안녕히 가십시오’라며 세 번 소리쳤다. 귀국의 기쁨, 그리운 가족과의 재회에

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 비상착륙 도중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LLZ) 안테나 콘크리트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번 참사는 1993년 7월26일 아시아나 기 해남 추락 사고(66명 사망·44명 부상)보다도 사상자가 많아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인명피해가 컸다.

# 순천 한 아파트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전세사기 피해 호소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전세사기를 의심케 하는 피해가 발생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28)씨 등 입주인 10여 명이 10억원대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사기 피해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구나 피해 호소 입주인이 20~30대 청년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가정이어서 이들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과 경찰 수사 등이 절실해지고 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임대인 B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사과는 없었고, 보증금 내에서 해당 세대를 매매하라고

## 20~30대 청년 등 입주인 10여명, 보증금 받을길 ‘막막’

### 작년에도 입주인 130여명 95억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제안하는 내용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A 씨는 아파트단지에 전단을 붙이거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를 모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임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10여 평대 아파트를 4800~7000만원대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던 점과 피해 인지 후 임대

인 명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정황, 임대인이 소유한 30여 채 등을 들어 경찰 수사와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20~30대 청년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그간 전세 사기 규제 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지원 범위 확대 등을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는 물론 전남경찰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 심사를 받고 있다”며 “전라남도도와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을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2020년부터 137명이 총 95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 임대인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순천/정성인 기자

# “10년만의 수능만점, 내년 열매 확대”

이정선 광주교육감, ‘4대 영역 16대 광주교육’ 중점사업 추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30일 “2025년은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되고, 2년 연속 시도교육청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굵직한 열매를 수확한 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광주교육의 열매가 더 넓은 대지로 퍼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교육을 통해 다양한 실력의 토양을 다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에 기본교육을 광주교육 4대 영역 16대 중점사업에 반영해 공교육 안에서 회복하고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사업을 중등까지 확대하고,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을 튼튼히 한다.

교원은 수업성장 인증제, 서·논술형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수업을 내실화한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독서 교육 프로그램 ‘다 함께 책으로’도 지속 운영한다.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품을 수 있도록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다정

(情)다감(感)’을 시작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상담 환경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민원 면담실을 도입한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림미’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 교육감은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한바퀴, 이종언어 협력교사 제도 등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광주 민주주의 역사누리터를 차질없이 개관해 더 쉽고, 더 깊게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전국 최초 AI교육원 개원, 소문·협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수요자 맞춤형 교육협력사업 확대, 지능형 과학실 구축, 생태전환교육 강화 등의 2026년 주요 사업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광주교육은 어려운 재정여건, 새로운 교육과정, 디지털 교실 혁명 등 여러 난제 속에서도 교육공동체의 노력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광주교육은 병오년 붉은 말처럼 도약의 발판을 딛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성호 기자

# 청년 실업난 속 광주직업계고교 ‘공무원 28명 배출’

전남·광주여성 10명씩 합격... 직렬·전공 연계 교육 효과

청년 실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광주 직업계고등학교가 공직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광주 직업계고 학생 28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직종별로는 국가직 19명, 지방직 5명, 군무원 4명이다. 지난해 합격자 20명보다 8명 늘어났다.

학교별로 전남여성상과 광주여성상이 각각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남여성상은 올해 국가직 9명, 지방직 1명이 합격했으며, 광주여성상은 국가직 7명, 지방직 1명, 군무원 2명이 공직에 진출했다.

특히 전남여성상은 2012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전형 도입 이후 총 74명이 합격하면서, 전국 직업계고 가운데 가장 많은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광주공고와 전남공고는 각각 2명씩 기술직급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광주자연과

학교도 국가직 합격자 2명이 나오며 계열별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와 금곡공고가 군무원 합격자를 각각 1명씩 배출했다.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렬·전공 연계 맞춤 지도, 필기시험 이후 단계별 학습 관리, 최종 면접 대비 집중 교육 등 전형 단계에 맞춘 맞춤형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교육청 교육행정 직군에 직업계고 출신 전형을 신설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공직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맞춤형 교육과 진로·취업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